

전남도, e-모빌리티산업 주도 나선다

2022년까지 e-모빌리티 5043대 · 충전기 7272기 보급

“903억원 들여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조성 계획”

전남도가 새 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e-모빌리티산업의 공급시장 주도에 나선다. 17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731억원 등 총사업비 903억원을 들여 전남 전역에 e-모빌리티 5043대, 충전기 7272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e-모빌리티는 초소형전기차, 전기기류차, 농업용전기운반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경제특우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

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e-모빌리티 보급 중기계획을 통해 영광을 중심으로 특화된 e-모빌리티산업 성장을 가속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미래자동차'를 혁신성장을 견인할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생산성 기반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 혁신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

차 6만5000대(누적) 수요 창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달성하도록 1조1000억원을 들여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를 대폭 보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연말부터 영광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로 양산될 e-모빌리티를 도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반경 40~60km 간격으로 공용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e-모빌리티와 이동형 충전기 구매보조금을 확대·신설하고, 긴급충전서비스, 공용충전기 보급 등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해 e-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민의 e-모빌리티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 초소형전기차는 최대 1000만원, 전기기류차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전기 보급사업에도 직접 나서 민간완속전기차(도비 43만원)와 공용완속전기차(도비 150만원, 시·군비 150만원) 설치 지원을 통해 e-모빌리티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종갑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앞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며 “민·관의 적절한 투자와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면 전남의 e-모빌리티 산업이 조만간 미래자동차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 공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미로센터 명명

광주 동구가 공동 문화예술 지원 액키시절 명칭을 '미로센터'로 이름 지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일환으로 지난 7월 준공된 '미로센터'는 총 사업비 52억여 원을 들여 기존 4층 건물을 보강·리모델링하고 수평으로 별관을 증축했다. 미로센터는 82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해 교육·행사시설, 창작실, 라이브러리, 기존 무등갤러리와 연계되는 공간 등을 갖췄다.

10월 정식개관을 앞둔 미로센터는 공간홍보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패턴(patron, 후원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구, 농성동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청회 개최

광주 서구가 오는 19일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농성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읍해 하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최종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업계획에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서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벚꽃마을 주민협의체, 행정협의회, LH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 왔다.

남구, 고약한 냄새 풍기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

광주 남구는 악취로 인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수거 작업에 나선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은행나무 약 5,600그루가 심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은행나무가 가장 많이 심어진 백운광장에서 광주대 방향 서문대로 구간을 비롯해 남구청에서 남구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어진 봉선로, 돌고개에서 백운초등학교 방향 월산로 등 도심 도로변 15구간에서 수거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북구, 객관·과학적 행정서비스 위해 빅데이터 분석

광주 북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체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의 '해안'과 통계청 자료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1인 가구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행정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북구는 1인 가구 현황 전수조사 자료 6만 630여건과 통계청 자료(2000년~2017년)를 바탕으로 △북구 장애인구 예측 △동별·성별·연령별 1인 가구 통계 △위기가구(고위험군·위험군) 현황 등을 분석했다.

광산구 수완동주민자치회, 마을의제 사전투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주민자치회가 18~19일 오전9~오후6시 장덕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수완병원 4곳에서 마을의제 5개를 놓고 우선순위 선정 사전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사전주민투표에 제안된 마을의제는 동 주민자치회 마을사랑단 활동,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 '아파트사이사이 마을정터 운영' '문화활동센터 건립' '풍영정원을 맑고 깨끗하게' 등이다.

이번 투표결과와 21일 '수완동민의 날 축제'와 함께 열리는 주민총회 현장투표와 합산돼 마을의제 우선순위 결정에 쓰이고, 2020년 수완동 마을계획 수립에도 반영된다. 주민총회에서는 제안자들이 참가자들에게 마을의제를 발표해 주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무등산 오를 때 친환경 도시락으로” 21일부터 배달서비스

보리굴비·무등정식 등 2가지 주문 가능



무등보리굴비 주먹밥



무등정식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시범 운영과 동시에 도시락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탐방로 입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탐방객에게는 도시락 준비 불편을 해소하고, 국립공

원에는 환경 트렌드를 반영해 일회용품 제로화, 지역사회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공모를 통해 지역 내 기업을 서비스 제공 업체로 선정하고 광주지역

중심탐방지원센터와 원효분소, 화순지역 수만리탐방지원센터 총 3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약 주문은 카카오톡에서 '무등산 내 도시락 부탁해'를 검색한 뒤 친구 맺기 후 채팅을 통해 산행 하루 전 오후 4시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메뉴는 남도의 한정식을 느껴볼 수 있는 무등정식(잡곡밥, 보리굴비고추장, 제육볶음, 여러 밀반찬과 제철 채소·과일)과 광주 대표 음식인 떡갈비와 보리굴비를 넣어 만든 무등보리굴비 주먹밥(보리굴비주먹밥, 떡갈비, 밀반찬 제철 채소·과일) 등 총 2가지다.

도시락 이용요금은 개당 8000

원으로 해당 금액은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하면 주문이 완료되고 주문한 도시락 인수와 반납지점은 동일하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9시부터(도시락 인수) 오후 5시까지(도시락 반납)다. 다만 최소 주문수량은 4개, 최대주문 수량은 100개다.

도시락 시범 운영 첫날인 21일에는 무등산국립공원 장봉재에서 탐방객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에게 무료로 무등산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을 제공하고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9월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시범 운영과 품평회 의견을 수렴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탐방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추가 접수

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추가 지급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추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한다. 시는 차량 제작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시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

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9월 초 접수분을 포함해 총 4200여대를 조기폐차 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생계형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서은홍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